

“신규직원 이종삼입니다” 미소와 악수로 환영



신규직원 이종삼

“안녕하십니까! 신규직원 이종삼입니다.” 환한 미소와 악수로 환영

겨울바람에 새벽공기는 차고 쌀쌀했지만 나의 가슴만은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 3월3일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원지원으로의 첫 출근 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직원 이종삼입니다!” 패기 넘치는 당찬 목소리와 함께 강원지원 사무소 문을 벌컥 열었고 놀란

선배님들은 이내 환한 미소로 악수와 함께 나를 반겨주었다.

김관태 강원지원장님은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 진짜 프로가 되는 과정이니 열정을 가지고 잘 해나가자”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셨고 모든 강원지원의 선배님들은 하나하나 진짜 품질평가사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나에게 주어진 첫 미션 “3월 3일 삼겹살Day” 수행

3월 3일은 삼겹살 Day! 첫 날부터 나에게겐 해결해야 할 미션이 생겼다. 바로 삼겹살 데이를 맞아 진행하게 될 행사의 문구를 만드는 것! ‘삼삼데이는 건강한 우리 돼지 먹는 날!’이라는 문구로 행사는 진행되었고 출근 첫 날부터 강원지원에 도움이 된 것 같은 마음에 무척이나 뿌듯했다. 또한 앞으로의 적응교육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란 기분 좋은 예감도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교육 및 경험을 통한 축산업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강원지원에서의 적응교육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등급판정 업무는 기본이고 현재 축산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도와준다. 3월 10일 황성축협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목소리가 한창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협과 기술교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서로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 신규직원 임용식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발전해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전한다!'를 속으로 외치며 아직은 한 없이 작은 나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다.

정연복 평가팀장님은 내가 다양한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다. 강원대학교에서 열리는 한우 마이스터 대학 교육에 참석해 농가들이 교육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역할 또한 무궁무진하게 크다는 것을 느꼈다. 강의하는 평가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내 지식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 등급판정 실습

현장견학을 통한 '한우 사육은 과학이다'라는 느낀점 가져

우수농가 현장 견학은 우리 한우를 키우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떠한 사양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력을 가진 한우라도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원인을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자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원지원은 정말 정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하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업무에 있어서는 냉철한 프러다운 모습을 배우고 업

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꼈다. 또한 강원지원은 등급판정뿐만 아니라 사양기술이나 식육 등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이다. 대한민국 축산업에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무럭무럭 생겨난다. 나 또한 이곳에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부심이 솟아나게 된다.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축산물품질평가원에는 종삼!이라는 다짐으로

적응교육은 내 이름으로 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 3개월이 지난 후 받게 될 축산물품질평가사증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교육기간 동안에 많은 공부와 노력으로 조금은 더 가볍게 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근길, 차가운 겨울바람을 뒤로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상상했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의 나의 미래도 활짝 피어나고 싶다.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축산물품질평가원에는 종삼!'이라는 다짐을 마음의 새기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가 될 수 있는 핵심인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릴 것이다! **등급정보**